

PA-28

쌀보리(*Hordeum vulgare* L.) ‘호강’의 주요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김양길^{1*}, 윤영미¹, 이미자¹, 김경호¹, 강천식¹, 박종호², 박태일¹, 김태현¹, 오세관¹¹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²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420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**[서론]**

최근 다양한 건강식품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소는 물론 곡류에 있어서도 혼반용 기능성 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병해에 강하고 재배에 안정적이고 다수성인 메성 쌀보리 ‘호강’에 대한 지역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알아보고자 시험을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익산(전주), 나주, 진주, 대구 등 4지역, 답리작 조건에서 대비품종인 새쌀보리를 대비하여 시험하였다. 시험재배는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으로 시험하였으며, 생육특성,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(RDA 2012)에 준하였다. 내한성은 경기도 연천, 보리호위축병은 익산 상습발병포장에서 검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각 지역별 ‘호강’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시험한 결과, 출수기는 익산(전주), 나주, 진주, 대구 등 4지역 평균 4월18일로 새쌀보리(4월19일)보다 1일정도 빨랐으며, 성숙기는 5월26일로 새쌀보리와 같은 시기에 성숙하였다. 토양바이러스병인 보리호위축병(1)은 저항성이며, 내한성은 새쌀보리와 비슷하였다. 농업형질 중 간장은 69cm로 새쌀보리보다 5cm정도 작아 포장도복이 1 정도로 강하였다. 수장은 6.2cm로 새쌀보리보다 크고, 수수는 441개/m²로 비슷하였다. 1이삭 당립수는 65개로 7개정도 많고, 천립중은 34.6g으로 대립이며 새쌀보리(30.5g)보다 무거웠다. ‘호강’의 품질 중 단백질(10.1%)과 아밀로스(21.7%) 함량은 새쌀보리와 비슷하였으나 베타글루칸(5.5%)과 백도(37.6)는 높고 흡수율과 퍼짐성이 좋았다. 조곡 수량은 ha 당 4개 지역평균 4.56톤으로 새쌀보리(4.26톤)보다 7% 정도 많은 다수성이었다. 또한 ‘호강’은 재배에 안정적인 메성 쌀보리로 1월 최저평균기온이 -6°C 이상인 지역에 보급 될 것으로 기대 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5004022021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교신저자: Tel. +82-63-238-5224, E-mail. kim5yk@korea.kr